

1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해요

배울 말씀

창세기 1:28,
시편 19:1,
골로새서 3:23

읽을 말씀

창세기 1:28 하,
시편 19:1,
골로새서 3:23

외울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메인 아이디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고 다스리며,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포인트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라!

목표

- 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고
다스리기 위해 새롭게 배워야(공부해야)
함을 안다.
- ② 공부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높일 수 있음을 안다.
- ③ 공부하기 힘들 때도 인내하며
공부하기로 다짐한다.

준비물

성경,
생각마당 시각자료,
말씀마당 그림자료 ,
어린이용 교재,
어린이용 스티커지,
그리기 도구

설명

기독교인에게 공부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거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세속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질서 속에 담긴 지혜를 발견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명(Calling)의 과정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공부의 성경적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인생 목적을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는 본질적인 신앙 교육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주가 만드신 이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만든 이의 의도가 담긴 매뉴얼을 읽어야 하듯,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목적과 계획으로 만드셨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신 '칭지기적 사명'을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부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어린이들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다. 공부를 단순히 운택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결국 세상의 성공 신화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 공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경이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가 고유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이 정립될 때, 어린이들은 학업의 고단함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내적 동기를 얻게 된다.

1과에서 어린이들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학업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자라갈 것을 다짐하게 된다.

READY!

생각마당 시작자료 1과를 뜯고, 나비 그림만 보이도록 접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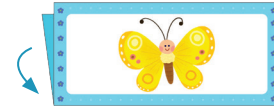
GO!

날말 카드를 보며, 글자를 왜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시각자료의 나비 그림을 보여주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나비예요. (시각자료를 펼쳐 '나비' 글자를 보여주며) 여기 '나비'라고 쓰여 있어요. 저를 따라 글자를 읽어보아요. (한 글자씩 가리키며) “나”, “비”.

(시각자료를 접어 '나비' 글자만 보여주며) 여러분, 이 글자를 읽어볼까요? (읽은 후) 와! 모두 “나비”라고 잘 읽었어요. 여기에 '나비'라고 쓰인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방금 글자를 배워서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글자를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글자를 배워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TIP _____
그림자료를 스케치북, 용판 등에 붙여 활용하면 편리하다.

READY!

- ① 성경을 준비한다.
- ② 예수빌리지 홈페이지에서 말씀마당 그림자료 1과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한다.

GO!

1.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고 돌보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공부해야) 한다.



글자를 배우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내 이름도 쓸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어요. (1-1을 보여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들어보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하).

다스린다는 것은 잘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준 후) 세상을 잘 돌보려면 먼저 세상을 잘 알아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할 시간을 준 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아요.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요. 또 글자와 숫자를 배워요. 책도 열심히 읽어요. 이것은 모두 새롭게 배우는 일이에요. 공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 수 있어요.

2. 하나님을 알리고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대답을 들은 후, 1-2를 보여주며)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해와 달, 별이 있어요. 땅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답을 들은 후) 나무, 꽃, 동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많아

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달, 별, 꽃,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숨씨를 알립니다.”(시 19:1, 쉬운성경)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지를 자랑한대요. 꽃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하늘의 별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세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숨씨를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며 “와, 하늘이 참 멋지다!”, “꽃이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준 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 배웠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반짝이는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라고 하나님의 숨씨를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씨를 알려주어야 해요.

3. 공부하기 힘들 때도 인내하며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



(1-3을 보여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공부는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는 것도 기쁘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줄게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골 3:23, 쉬운성경)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공부가 힘들어서 하기 싫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배워야 해요. 이렇게 열심히 배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멋지게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고 잘 돌보기 위해 배워요. 또 하나님의 숨씨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공부해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어린이가 되어요.

READY!

말씀마당 그림자료를 활용한다.

GO!

배운 말씀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1. (1-1을 보여주며) 글자를 배워서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잘 알게 되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게 돼요.)



2. (1-2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돌볼 수 있어요. /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어요.)



3. (1-3을 보여주며)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요.)

D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참고 오늘 할 공부를 해 내요. / 끝까지 열심히 해요.)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돌보아야 해요. 또 하나님의 숨씨를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해요. 때로는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 꼭 참고 배워야 해요. 저를 따라 외쳐보아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라!”

READY!

- ① 어린이용 교재 1과를 뜯고, 안내된 방법에 따라 '기억 주머니'를 접어둔다.
- ② 어린이용 스티커지 1과를 뜯어둔다.
- ③ 그리기 도구를 준비한다.

밖으로 접기



안으로 접기



① 접는 선을 따라 안팎으로 접는다.

② 접힌 부분을 모자챙에 끼워 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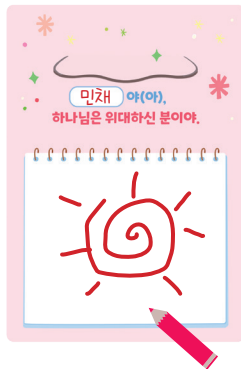
GO!

1.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고 돌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알아본다.



(‘기억 주머니’를 나누어준 후, 머리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 ‘기억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익힌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돼요. ‘기억 주머니’를 펼쳐보세요. (시간을 준 후) 우리는 어떻게 이 ‘기억 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까요? (스티커를 나누어주며) ‘기억 주머니’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대답을 들은 후, 스티커를 하나씩 가리키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찰해요. 한글을 배우고, 숫자도 배워요. 책을 읽어요.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운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고 잘 돌볼 수 있어요.

2. 하나님의 솜씨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배운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연습을 해본다.



이제 ‘기억 주머니’의 뒷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면, 친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주고 싶나요? (대답을 들은 후, 어린이들이 말한 이름을 교사가 적어준다.) 이제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솜씨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기 도구를 나누어 주고, 시간을 준다.)

다 그렸나요? (대답을 들은 후,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고 언급하며) 친구에게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어린이도 있고, 높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어린이도 있군요. 모두 하나님의 솜씨를 잘 그려주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야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3. 공부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열심히 하기로 다짐한다.



‘기억 주머니’를 앞면이 보이도록 놓고 다시 처음 모습처럼 접어보세요. 그리고 모자 끝에 접힌 부분을 잘 끼워보세요. (시간을 준 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가끔은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나요? (대답을 들은 후) 그럼, ‘기억 주머니’를 높이 들고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라!”

기도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알고 돌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진리



공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완성된 활동지에 있는 '포인트'를 한 번 더 외치며 오늘의 핵심 진리를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라!”

